학술특집

군비과다지출이 성장저해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관계

송 병 록
(본교강사 정치학)

오늘날 국제환경은 탈냉전과 국가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상황은 긴장속의 공존으로 인하여 남북한 공히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를 파산 일보직전까지 가게 만들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에도 경제력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저해하고 있다. 군사비지출과 국민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과제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과 지출의 소득승수라는 측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방비와 일반논쟁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흐름을 보면 국방비 증대가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과 여러 파급경로를 통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대별된다. 일반적인 논쟁의 효륜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방부문의 비생산적 본질과 속성을 강조하므로써 부정론의 근간이 되어왔던 근본주의적 시각과 1939년 케인즈(James Keynes)경제학의 탄생과 유효수요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비의 긍정론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방비는 단순한 경제적 손익비교분석만 가지고 그 규모와 타당성을 결정 할 수 없는 특수 공공재이다. 국방은 모든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방위력을 갖추어야만 하는바, 이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방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국방비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극히 중요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국민의 경제활동이 불안과 위협에 휩쓸려 국민의 일상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국가의 독립과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이상 그것은 전혀 생산적인 것이기에 국방비의 성격은 결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해석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다른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방비가 파도하게 편성되면 국민경제의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이는 국방비의 재원을 감소시켜 결국 국방비 자체도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이 제출한 '94년 세계경쟁력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91년도에 개도국 중 3위였으나, 92년도에는 5위, 93년도에는 6위, 94년도에는 7위로 떨어졌다. 또한 개도국과 OECD 가입 41개국 중에는 태국보다도 못한 24위로 급락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과학기술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 54조9천여억원 중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증가율은 15.4%로 전체예산 증가율 15.8%와 별로 차이가 없으며, F-16 한대 값에도 못 미치는 장래인 예산을 갖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내년도 방위비 대 전체사회복지비는 약 11조5천억원 대 3조9천억원으로 약 3 : 1 비율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을 뒤기에 국가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정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진산업국가들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수용과 신뢰할만한 방위력의 지속이라는 두가지 과제에 직면하여 양자의 동시충족이 불가능하며 전자의 요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자국의 경제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으나, 현재에는 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미 최고도에 달해 복지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제는 군의 규모를 줄이거나 군사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경제에 공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가방위정책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체제만족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쟁시 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가 민주적·효율적으로 기능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 정책정의가 수반된 튼튼한 경제체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을 때 국민들의 체제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체제만족들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가방위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군사비지출은 경제의 기간산업건설의 촉진, 기술전파, 그리고 정치 및 사회교육 등의 긍정적 역할을 통해서 경제성장 및 근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방비는 GNP의 6%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방비가 비생산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보고 되었으며, 국방비는 "1회 소모성 지출이 아니고 국민경제 및 사회개발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국가자원의 확대재생산 비용"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군사비지출은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무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간접적으로는-군사비지출의 기간산업 발전에 대한 효과와 이어 기간산업발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통한-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사비지출이 사회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군사비지출의 총체적효과-즉, 기간산업확충을 통해 경제전반에 영향을 포함하는-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국가와 군비삭감

한국에서는 국방비의 과도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놀라운 성장때문에 한국의 군사비지출이 경제성장에 별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군사비지출과 경제성장간에 대체로 역관계가 성립되어 군사비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효과는 주로 자본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투자에 유용한 자본과 사원을 고갈시키기 마련이며, 이러한 투자율의 감소가 바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한국의 군비증가에 대한 효과와 이어 기간산업발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통한-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사비지출이 사회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군사비지출의 총체적효과-즉, 기간산업확충을 통해 경제전반에 영향을 포함하는-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비통제와 통일정책

이는 율곡사업으로 대표되는 군전력증강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을 뜻하며 운영유지비의 경우도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신축성이라고 전혀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경직성 경비여서 실질적인 삭감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정부재정 중 최대규모를 차지하는 국방비가 이처럼 경직된 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력과 군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방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의 군사력을 숫자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우리의 전력증강목표를 세우는 한국군의 군사전략인 '대응전략'개념에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을 군사적 주요적국으로 보는 논리에서 중국과 일본을 새로운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는 논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의 방위정책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강대국들의 군사력을 고려하여 추구돼다면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 명백하다. 그러기에 이제 한국군의 군사전략은 북한만을 의식하는 대응전략에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쟁억지전략'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전쟁억제력은 상대방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힘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국방비는 한반도 통일정책과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주변국과 다자간 안보협력을 성사시킨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크게 향상되어 국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국의 국방비편성의 골간은 남·북한간의 현실성있는 군비통제와 통일정책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갖지 못하(게 하는 한·미간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군사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데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현실성 있는 군비통제전략과 전쟁억지전략에 입각한 군사력건설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방경제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적정국방비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노력없이는 한국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나, 부한강제전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효과적 방위정책, 체제만족도에 직결
한미간 불평등한 군사관계해소가 관건
군비통제·전쟁 억제 위한 국방비 산출

세시봉

김중석 편집장

언론의 평가, 역사의 평가

잔인한 10월이었다. 근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그릇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필연적일수 밖에 없는 일들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마음을 다잡고 11월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조간은 사병이 장교를 사살하는 사건을 일제히 보도, 또다시 우리를 놀랍고도 슬프게 만들었다.

국가관리체계의 허술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태들에 대해서, 검찰은 청와대 외풍 헤아리기에 바쁘고, 고위관계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고 있으며, 기득권층과 일부언론에서는 거짓진단과 거짓처방을 태연히 제시하고 있고, 대통령은 일부언론과 그 언론이 조작한 여론에 현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득권층과 일부언론에서는 홍박범사건에 대해서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적 속성과 사회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그것을 단지 개인에게 병리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자느니,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가정의 권위가 서야한다느니 하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누가 구속될 듯, 누가 소환될 듯하는 선정적 기사를 경쟁적으로 내보내더니, 어떤 신문은 '이원종씨 오늘 구속영장'이라는 엉터리기사를 지난 4일자 1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잇따른 군의 하극상을 접하고는 3공때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죽은 독재자에 대한 향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하기야 이들은 12.12쿠데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재봉 의원의 냉전적 발언에도 지지를 표명했다.

도덕성회복 하는 말들은 듣기에는 이상적일지 몰라도, 그러한 수사는 캠페인성 구호에 그치기 쉬울뿐더러 책임소재의 규명없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고, 국가체계를 다시 짜고, 윤작과 비리를 가능케하는 사회 구조를 재조정하는 일인은 자명한 이치이다.

잇따른 사고와 정책의 혼선으로 김영삼 정권은 지금 위기에 빠진 것 같다. 권력구조 내의 소수파인 김정권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김대통령은 지지기반을 영남한데서 찾으려하고 있다. 수구세력의 이해와 일치하는 정치는 당장에는 국정운영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발씩 들여놓을 때마다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도 같은 것이다. 김 대통령은 여론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인기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조선건국 초기 태종이 없었다면 세종의 위대한 업적은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 평가다. 김 대통령은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성장제일주의의 후유증을 치유하여 나라의 기초를 닦는다는 결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김 대통령이 조작된 여론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취임 당시의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화려한 주목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후세 사가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학술단신

경희법학연 발표회

경희법학연구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법대 403세미나실에서 '한국법학의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회를 연다.

이 발표회에서 소재선(법학) 교수는 '인사법학에 대한 반성과 기능적 접근방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독일 입대차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발표에서는 분단현실의 한국에 좋은 본보기인 통일독일 입대차법의 기능주의적 정점과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또한 정원용(법학)교수가 발표하는 '상사법학에 대한 반성과 기능적 접근방법의 모색'은 개정 해상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발표회에서 해운환경의 변화와 해사국제조약의 증가로 개정된 해상법의 내용과 해사국제조약이 상법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질,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표될 예정이다.

리영희교수 초청강연

지난 1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통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란 주제로 외무초청강연이 진행됐다. 이 강연은 대학원 공학생회가 주최하는 '제4회 가을학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학부, 대학원생 등 1백여명이 참여한 이 강연에서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교수는 통일문제를 현실과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리교수는 특히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강연을 풀어갔다. 또 남북한이 하나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현실적인 문제인 군사분제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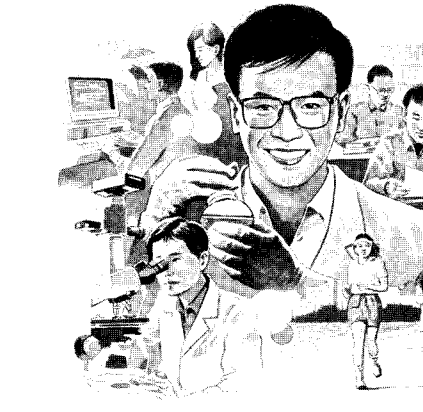
특히 북한핵 문제와 남북한 군사력 비교,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예로 들어 남북문제를 바로보는 시각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한의대 학술강연회

한의대 학생회는 오는 8,10일 오후 5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술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8일에 '과학, 신과학, 한의학'이란 주제로 김용정(동국대 철학과)교수가 과학의 개념 변천, 신과학운동의 태동등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다. 또 10일에는 '중의학의 현황과 비판'이란 주제로 최승훈 한의학 교수가 중국의학의 현실을 진단, 비판하고, 한의학계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효성은 노력하는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대졸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구 분	전 공	모집 인원
인문사회계 이공계	관련전학과	400명

2. 응시자격
1) 1995년 2월 1년째 졸업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대학원 졸업자는 학사만)
2) 1967년 1월 1일(석사는 1965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병역특례보충역 해당자는 응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지원 가능한)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적성(인성) 검사 · 인성 및 신체검사
(2차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인성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예정이며, 효성물산(주)에서는 영어시험을 실시함)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붙임용 증명사진) ……1부
2) 대학(원) 성적증명 및 졸업증명 ……1부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14:00
2) 장소 : 접수처와 동일(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1994년 11월 11일(금) ~ 11월 18일(금) 09:30 ~ 17:00
(단, 일요일 (11/13)은 교부 및 접수하지 않음.)
2) 교부처

지역	교 부 장 소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0 효성인력관리위원회	02) 707-7090~2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물산(주) 인사부	02) 771-1100 (교환 : 808~810)
부산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8-14 (정석빌딩 6층) 효성물산(주) 부산지사	051) 463-1972~7
대구	대구시 서구 내당1동 242-1 (행성빌딩 6층) 효성물산(주) 대구사무소	053) 562-5924~6
광주	광주시 서구 농성동 652-1 (광주상공회의소빌딩5층) 효성물산(주) 광주사무소	062) 362-1175 363-1176
대전	대전시 중구 유천동 188-15 (시학연금회관 11층) 효성물산(주) 대전사무소	042) 532-2180~2
울산	울산시 남구 매암동 588 동양나이론(주) 울산공장 인력관리부	0522) 78-7142~5
청원	청원시 내동 청원기계공업기기 A-1지구 효성중공업(주) 청원공장 노무부	0551) 68-2042~4

3) 접수처 : 해당지역 교부처와 동일
(우편으로 접수시에 봉투에 "효성인력관리위원회"없으로 발송)

7. 기 타
1) 주민등록증 마감일 17:00까지 도착된 등기우편에 한하여 접수함.
2) 공채인 복무중인자는 94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3)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효성인력관리위원회로 문의바람.
전화 : (02) 707-7090~2

효성인력관리위원회